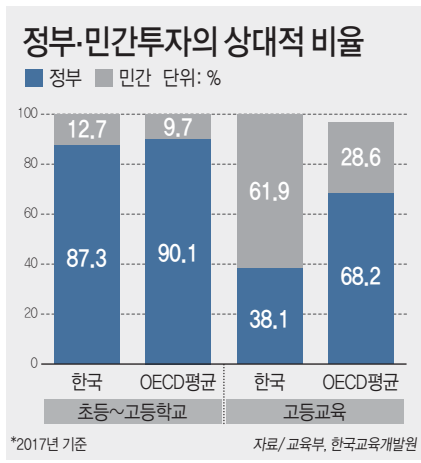


韓 고등교육 이수율 70%... 정부투자는 OECD 평균 이하

교육부 OECD 교육지표 분석·발표
공교육비 정부재원 비율 평균 이하
고등교육 대부분 사립대학에 의존
R&D 예산 제외 등록금으로 충당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7명은 고등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정부 투자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반상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OECD 교육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발표했다.

OECD 교육지표는 회원국들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의 사회적 성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국제 비교자료로, 교육정책 수립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는 학생·교원은 2018년~2019년을, 재정은 2017년을, 교육참여·성과는 2018년~2019년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 대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 OECD 평균 2/3수준

2017년 우리나라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단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는 5.0%로 OECD 평균인 4.9%보다 높지만, 공교육비의 정부재원 비율은 평균을 밑돈다.

2017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재원은 3.6%로 OECD 평균(4.1%)보다 낮았다.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0.8)보다 높다.

대학의 상황은 더 안 좋다. 고등교육(대학)단계의 정부재원 비율은 0.6%로 OECD 평균(1.0)보다 낮았다. 민간재원 비율은 1.0%로 OECD 평균(0.4)보다 높았다.

우리나라는 사립대학 비중이 80%에 육박해 고등교육 대부분을 사립대학에 의존하고 있고, 고등교육 재원도 R&

D 예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교육비에서 정부와 민간투자의 상대적 비율도 평균보다는 낮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대학) 공교육비 중 정부투자의 상대적 비율은 72.1%다.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는 87.3%지만, 고등교육(대학)으로 올라가면 38.1%로 폭 떨어진다. OECD 평균은 ▲초등학교~고등학교(90.1%) ▲고등교육(68.2%)이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교육에서는 OECD 평균보다 높았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등학교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1702달러 ▲1만 3579달러다. OECD 평균은 각각 ▲초등교육 9090달러 ▲중등교육 1만 547달러다.

하지만, 고등교육(대학)에서는 OECD 평균 1만 6327달러에 훨씬 못 미치는 1만 633달러에 그쳤다.

초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 1981달러로 전년보다 664달러(6%) 증가했다.

◆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69.8%... OECD 국가 중 2위

2018년 우리나라의 연령별 취학률은 ▲6세~14세 99.1% ▲15~19세 84.3% ▲20~24세 49.5%로 OECD 평균보다 높았으나, 25~29세는 8.3%로 OECD 평균보다 낮았다.

만 5세 이하의 취학률은 ▲만 3세 92.3% ▲만 4세 93.8% ▲만 5세 97.2%로 모두 OECD 평균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2019년 청년층(25~34세)은 69.8%로 OECD 국가 중 최상위권(2위)을 차지했다. 12년 연속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던 청년층 고등교육 이수율 순위가 올해는 2위로 밀려났지만, 우리나라 청년 고등교육 이수율 수치는 지난해 69.6%에서 올해 69.8%로 0.2%p 상승했다.

성인(25~64세)의 고등교육 이수율로 대상을 넓혀도 취학률은 50.0%로 OECD 평균(39.6%)보다 높았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누리집에 올해 9월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20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올해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삼육대 채희원 취업전담교수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인생설계와 진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삼육대

삼육대 '인생설계와 진로' 각광

삼육대 대학일자리본부가 비대면으로 운영한 '인생설계와 진로' 교과목이 코로나 시대 우수 진로·취업 지원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생설계와 진로'는 삼육대 모든 신입생이 첫 학기에 수강하는 교양필수 교과목이다. '대학'과 '성년'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놓인 청년들이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적성과 진로 방향을 설정하고, 취업 설계까지 하는 것이 학습목표다.

당초 강의실에서 진행하던 '인생설계와 진로'는 지난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의 확산세로 전면 비대면으로 전환해 운영됐다. 수업은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으로 이뤄졌다.

/이현진 기자 lhj@

세종대, THE 세계대학평가 역대 최고순위 기록

“교수진 채용·연구지원 성과”

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 213%
논문 피인용 수치 국내 최고수준

올해 창립 80년을 맞은 세종대가 THE 세계대학평가에서 국내 순위 9위에 오르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특히 학교법인 대양학원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213%로 국내 13위를 기록했다. 국내 사립대학 146개에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넘는 대학은 39개 대학뿐이다.

세종대는 세계대학 순위에서도 301~350위권으로 진입하며 국내외 해외에서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논문의 질적 우수성을 반영하는 논문 피인용(Citations) 수치도 국내 최고 수준이다. 피인용이란 같은 분야의 동료 학자들이 얼마나 인용했는지 알려주는 수치다. 세종대는 이 지표에서 국내 2위에 올랐다.

세종대는 “우수한 교수진을 채용하고 연구에 많은 지원을 쏟은 수년간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국 고등교육평가 기관인 THE(Times Higher Education)는 세계 최고의 대학평가 기관으로, THE 세계대학평가 순위는 수업·연구·영향력·국제 전망 등을 바탕으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높다. 영국 런던의 타임즈에서 발표한다. /이현진 기자

나노구조화된 흑연질 탄소재료는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현재 연구 및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양승재 교수와 그의 연구팀인 화학공학과 신민창 석사, 김재호 연구원은

인하대, 차세대 배터리 핵심기술 발표

양승재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
울속 특성 개선 나노탄소전극 개발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앞당길 핵심기술이 발표됐다. 연구 결과는 국제 권위 학술지 '스몰'(Small, 영향력지수: 11.459)의 표지 논문으로 채택됐다.

인하대는 양승재 화학공학과 교수 연구팀이 저온 흑연화 공정 개발을 통해 기존 흑연 음극의 낮은 울속 특성(충·방전 속도에 따라 용량 유지율이 좋아지거나 나빠지는 특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나노탄소전극을 개발했다고 8일 밝혔다.

나노구조화된 흑연질 탄소재료는 우수한 물리적, 화학적 특성으로 현재 연구 및 산업계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합성하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공정이 필수적이었다.

양승재 교수와 그의 연구팀인 화학공학과 신민창 석사, 김재호 연구원은



국제 권위 학술지 '스몰' 표지에 실린 나노탄소전극 이미지. /인하대

금속-페놀릭 배위결합에 기반한 저온 흑연화 공정으로 3D 구조화된 흑연 나노공을 합성, 금속-페놀릭 배위결합 및 열처리 온도별 엑스 시추법 분석을 통해 합성 메커니즘을 규명해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성과는 빠른 충·방전이 가능한 차세대 배터리의 개발 가능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이현진 기자



신성룡 학생 송현호 학생

국민대 신성룡·송현호 생태모방 공모전 대상

국민대는 바이오발효융합학과 4학년 신성룡·송현호 학생이 국립생태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가 후원하는 '제1회 생태모방 연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생태모방 연구 또는 제품 개발 아이디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생태모방이란 생태계나 생물자원의 기본구조와 원리를 응용하여 개발된 지속가능 발전 기술을 뜻한다.

국민대 신성룡·송현호 학생은 '해면동물을 모방한 해양 미세플라스틱 포획 부표'라는 아이디어로 대상을 수상했다.

두 학생은 최근 뜨거운 환경 문제인 해양 미세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물체의 구조 및 행동을 모방함으로써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해면동물의 먹이 포획 방식에 주목해 이를 물리화학적 지식과 결합한 해양 미세 플라스틱 제거 전략을 제시했다. /이현진 기자

건국대, 학종면접 '비대면평가' 진행

별도 고사실서 온라인 면접평가



건국대학교

건국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2021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 면접평가를 '비대면평가'로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학생부종합(KU자기추천, 사회통합, 특성화고교졸업자, 특수교육대상자)의 1단계 합격자 면접대상자들은 학교에 방문해 평가위원과 분리된 별도의 고사실에서 온라인으로 면접평가를 진행한다.

1단계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접평가는 제출서류에 기초한 개별면접으로 인성을 중심으로 학교생활 충실성을 종합평가한다. 지원자 1인 당해 평가위원 2인이 10분 내외로 면접을 진행한다. /이현진 기자

한신대, 15일 개교80주년 심포지엄 개최

코로나 이후 문명·한국사회 주제

한신대는 오는 15일 경기캠퍼스 송암관 유사홀에서 '코로나 이후 문명의 전환과 한국사회'를 주제로 개교 8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신대 개교 80주년을 맞아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한신대 신학사상연구소, 학술원,

대학혁신추진단이 공동으로 주관한다.

심포지엄은 1부 개회식에 이어 ▲2부 '코로나19 이후 문명의 전환과 한국사회' ▲3부 '코로나19 이후 교회의 미래' ▲4부 '코로나19 이후 신학의 미래'를 주제로 국내·외 석학들의 특별강연과 발표 그리고 질의와 응답으로 진행된다. /이현진 기자 lhj@